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미래학자와 함께 하는 진로 여행,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일자리와 노동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에는 어떠한 직업들이

더 인기를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구글에서 ‘더 베스트 잡스’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 자료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최고의 인기 직종을 검색하면

보통 200개까지 랭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10개 정도만 준비했습니다.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아래에  
3개 정도를 더 추가해 놓았는데요.

이것들을 다 설명은 드릴 수가 없고  
트렌드, 그다음에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해서  
청소년들의 진로 여행의

멘토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요점만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라는  
일자리는 우리말로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직업이 지난 7~8년 동안 계속해서  
상위 5위 권 안에 들어오는 직종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청소년기부터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할 때

바로 요새 유행하는 코딩 교육이  
이것과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코딩도

모두 로봇들이 합니다.

지금과 같은 기계적인 코딩보다는  
좀 더 수준 높은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한다면 논리학과 관련된 학습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경우에

코딩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논리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쪽에  
큰 비중을 두고

강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보면 오른쪽으로

연봉, 고용률, 성장 전망, 스트레스,  
근무 여건,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체계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든 항목은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10점에 가까울수록

강세를 보인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고용률’이라는 하나의 항목이 있는데

고용률은 반대로

실업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률이

10점 만점인 일자리는

실업률이 0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소프트웨어 개발자 같은

경우에 고용률이 10점입니다.

그 말은 미국에서 만일 1만 명의

대학졸업생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해에 필요로 하는,

이와 관련된 업종의 일자리는

1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10점 만점을

부여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장 전망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습니다.

성장 전망에 있어서도.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고용률, 또는 실업률이 현재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성장 전망은 미래의 지표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세 번째에 보면

‘준 의사’ 라는 의사 대행이란  
업종, 전문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현재 고용률은 보통 수준,

6.0의 점수를 받고 있는데  
성장 전망은 10.0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쪽 내려가서  
7위하고 있는 소아과 의사 같은 경우는

고용률도 보통 이하이고

그다음에 성장 전망도  
보통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전문직의 의사들보다도

미래에는 준 의사가 훨씬 더

유망한 직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의 지표로는 고용률을,

미래의 지표로는

성장 전망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자료들을 재구성해서

청소년들의 진로를 멘토링 해 준다면

아주 뜻깊은 진로 여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자료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활용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대통령 임기가 4년에 중임제입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8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차기 대통령이 추진할 정책과 예산은

전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말아서 기획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대통령에 취임했는데요.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예산과 정책들은

오바마 행정부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대통령은 바뀌어도, 정당은 바뀌어도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 되겠죠.

이와 같은 개념에서 만들어진  
모든 계획은 이러한 일자리가

우리 사회에 몇 년도엔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중에는  
박사급이 몇 명, 석사급이 몇 명,

학사급이 몇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이 되면  
그것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차질없이 추진되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한 해에 발표되는 통계들,

이러한 자료들은  
최소 8년간

신뢰도가 90%가  
넘을 정도로 예측률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가 선진국이나  
미국을 많이 따라잡고 있지만

지금도 4~5년 정도의 격차가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8년에 4년~5년을 더한다면  
12~15년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요.

이 정도는 제가 처음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쯤의 미래와  
일치하는 점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참고해서

학습활동을 하고  
진로 탐색을 해나간다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 때쯤이면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단일학문보다도 융합학문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기술 분야의  
인기직업 순위도 검색해 봤는데

앞엿것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두 번째로 '통계 전문가'라는 직종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앞의 자료처럼 한번  
얘기를 해 볼 텐데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통계전문가가 고용률에서는  
보통 수준의 6점을 받고 있지만,

성장 전망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마찬가지로

10점 만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미래에 대단히  
유망한 직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지금 이미 우리도 기업이나 국가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거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빅데이터에서 핵심 중의 핵심인  
학문이 바로 통계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역설적으로 수능이라는 입시제도가  
 끝나고 나서 통계를 배워야 하는

교육과정의 순서 때문에  
시험이 끝난 뒤에 통계 수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개별적으로라도 이 통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심을 두게 하거나

또는 숫자와 관련된 학습활동을  
은연중에 많이 하게 해 준다고 하면

아마 이 친구는 상당히 미래 경쟁력을  
청소년기 때부터

만들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디어-창작 분야에서도

인기순위를 제가 소개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많은 사람이

연봉에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서

‘더 베스트 페이징 잡스’ 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더니

모든 순서에 변동이 생겼는데요.

대부분의 의료 관련, 보건 의료 관련된

직업들이 전부 TOP10 안에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용률과

성장 전망에서는 10점, 8점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에는 이런 일자리들이

아주 인기 직종이거나 고액연봉일지라도

그것이 과연 성장 전망치를 봤을 때는

미래에 이어질 것인가

그 부분은 불투명하다는  
그런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랭킹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인기 직종의  
검색에서 나오는 직종에서

200위 안에 들어간 것은 서열, 순서는  
크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위 안에 있는 일자리들을  
수시로 검색하면서

가정에서도 자녀와 함께,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교과를 초월해서 범교과적으로  
활동한다면 의미 있는

진로 여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검색어를

더 리스트 스트레스풀 잡스  
(The Least Stressful Jobs)' 라는

개념으로 넣어봤습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미국인들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무엇일까?’ 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역하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는 일자리라는 것이죠.

앞에 나왔던 인기 직종이나  
유망 직종이나 고액연봉 직종과는 달리

이 직업들은 그렇게 10만 불을 넘는  
직업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의 성인들과 청소년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가 봅니다.

이런 키워드들도 트렌드를 찾아보면  
재미있는 토론 활동을

학생들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그와 반대로

‘더 모스트 스트레스풀 잡스’ 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은

직업들이 나타났어요.

이 직업들에서 보면 이것도 의역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런 일을  
안 하면서 살고 싶어’라는 직업들이죠.

여기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신체적 위험요소가 크거나  
마감 시간에 임박한 일을 한다든가 등등

이런 일자리들이 주로 할 수만 있다면  
안 하면서 인생을 살고 싶다는

직업들에 상위 랭크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청소년들,  
또는 자녀들과 재미있고 미래지향적인

진로 여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로 결정요인이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가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에는  
진로를 선택하는 기준, 사회적 기준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느냐, 보수입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권력입니다.

그다음에 얼마만큼 보람되고

명예로운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로 선택기준이

미래로 갈수록 바뀐다고 합니다.

보수, 권력, 명예 대신

얼마나 내가 자유롭게 쓸 시간이 많은가

또는 나의 흥미에 적합한가,

그리고 안전한가,

그리고 어느 정도

디지털 요소가 함께 가미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등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수나 명예보다도

훨씬 더 진로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미래에는 강화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무조건을 보면

과거나 현재에는

생계형 풀타임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철학형 파트타임 비정규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지금 모두가 정규직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미래에는 어쩌면 저와 같은 공무원들이

가장 인기 없는 직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죠.

충분한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시대에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는 일자리들을

우리는 보통 정규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정규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비인기 직종으로 전락할 수

있는 시대가 미래라는 것입니다.

‘철학형 파트타임 비정규직’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만일 평균적인 한 사람의 연봉이

6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 8시간씩 365일 중에

휴일 빼고 계속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문성을 가지고  
한 두세 달 열심히 일해 주고

6천만 원에 상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나머지 열 달은 자유시간이죠.

그동안 책을 사서 보기도 하고

여행을 하면서  
창의성을 계속 강화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활동기가 필요하면  
또 비정규직 개념의 파트타임으로

오라는 사람에게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해 주고 또 보수를 받습니다.

훨씬 더 자유시간을 많이 가지고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패턴의 일자리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철학적 파트타임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미래에는 이러한 형태로

진화해 나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도기에 있고

다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비정규직의 악용 때문에

이런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들이

오염돼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의 취업 통로는

대학과 직업교육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문대학과 인기학과들은

대부분 취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웬지 이 대학에 들어가면,

웬지 이 과를 졸업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보람되고

선망의 일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심리에서 보통

명문대학이나 인기학과를 진학합니다.

그런데요. 미래에는 상황이 바뀝니다.

대학이 취업의 통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업은 결국은  
사이버 게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별써 최근 뉴스를 보면  
인공지능이 면접하고

사원을 채용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별써 나오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예측들이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와 같이 미래 사회로 변해가면서  
과학기술 문명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이러한 미래 사회를 끌고 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원론적으로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과학기술 문명은  
인류를 노동으로부터 점점 해방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미래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한  
타임라인을 보면

나노봇과 인공지능들이 진화하면서  
필연적으로 인류의 실업률은 높아지지만,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으로 인류는 일하는 시간보다  
여가나 자유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베짱이처럼 자기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그러한 생활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가 되면

전쟁을 수행하는 로봇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분제도나  
군 복무에 상당히 많은

유연성이 생기지 않겠나 기대가 되고요.

2025년이 되면 지구상에  
로봇의 수가 인류의 수만큼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2035년쯤 되면 인류가  
하기 싫은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자리와  
노동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메이커의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